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 8. 5.(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랜섬웨어대응팀 김기문 팀장(전화: 02-405-4960, 전자우편: kkm@kisa.or.kr) 랜섬웨어대응팀 이은지 선임(전화: 02-405-4962, 전자우편: ejlee@kisa.or.kr)	
참고자료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총 2매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업 맞춤형 사이버 위협 알림 서비스 개시

- 아이피(IP), 도메인, 소프트웨어(SW) 등 핵심 자산 위협 징후 탐지 … 8월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함께 기업의 핵심 사이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공격표면 맞춤형 위협 알림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2026. 8. 5.(수)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4년부터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을 통해 기업에 다양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제공해 왔다. 다만 기업마다 보유한 자산과 필요한 위협 정보가 달라, 자사 환경과 직접 관련된 위협을 신속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개별 자산과 직접 연계해 위협을 선제적으로 탐지·알림 하는 '공격표면 맞춤형 위협 알림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번 서비스는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이 축적한 위협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격표면관리(ASM) 기술을 연계해 기업이 보유한 아이피(IP), 서비스 도메인, 소프트웨어(SW) 등 핵심 자산의 위협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해당 자산과 직접 연관된 위협 정보를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비스의 탐지 정확도와 운영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8월 중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에 가입한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이메일을 발송하고,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아이피(IP), 서비스 도메인, 소프트웨어(SW) 등 자사 인프라 자산을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https://ctas.krcert.or.kr)에 등록하고, 시범운영 동안 맞춤형 위협 알림과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용규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이번 공격표면 맞춤형 위협 알림 서비스는 단순한 위협 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의 핵심 자산 보호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